위험한 이름, 위험한 길

(창35:16~29)

16. 그들이 벧엘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17.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매
18.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9.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20.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21.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위험한 이름, 위험한 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위험한 이름, 위험한 길'
여러분은 위험한 길을 얘기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히말라야 등정길이 떠오르십니까? 얼마나 많은 전문 등산인들이 히말라야 등정 길에서 죽고 아직도 시체를 못 찾은 사람도 많이 있는 정말 위험한 길입니다.
아니면 북극을 탐험하는 길도 위험합니다. 정글을 헤쳐 나가는 길도 위험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심 한 가운데서 장사하는 길 또한 위험한 길이에요. 망하는 귀착점으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퇴직금을 받아서 투자할 때 투자의 길도 정말로 위험한 길입니다.
세상에 위험한 길이 굉장히 많은데 진짜로 위험한 길은 이런 길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위험한 길이라는 것들은, 아무리 위험해서 망하더라도 전부다 물질적인 차원의 상실로 끝이 납니다.
진짜 위험한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같이 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위험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존 정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히말라야 등정 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와 같은 비즈니스의 현실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축배를 들어야 될 이름이 아닙니다. 영광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직 영광을 말하기에는 이른 이름이고, 축배를 들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 안에는 가장 위험한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이름 안에 있는 위험한 길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바로 앞의 10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벧엘에서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읽은 부분에서 라헬이 벧엘에서 베들레헴(에브랏)으로 가는 도상에서 열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에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야곱의 모습이 20절에서 분명히 “야곱”이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만 이상한 것은, 20절에 야곱이라고 해놓고, 21절과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세 번이 나옵니다.
21-22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 다음에 바로 또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고 야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23절에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또, 26절에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27절에도 “야곱이 기랏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29절에서 이삭이 죽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만 갑자기 ‘이스라엘이 에델 망대를 지났고, 거기서 장막을 쳤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장자인 르우벤이 서모와 동침하므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앞뒤에서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가운데에 르우벤이 서모를 범하는 패륜적 행위를 중심으로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드러냈을까요?

(하하하)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참 대단한 책 아닙니까? 의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현재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고, 열두 아들을 통칭하는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 열두 아들로부터 시작한 히브리민족 전체를 통칭하는 이름이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다음에 얻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험한 이름이고, 그 이름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 되는 이유를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패륜으로 귀결되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위험한 길이 얼마든지 그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 성을 구경하러 나들이를 갔다가 세겜이라는 젊은 추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합니다. 그 일에 대해 복수하려고 할례라는 신성한 언약의 표식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을 배반하고 속이고 약속을 어기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고, 모든 형제들이 가서 그 아녀자들을 약탈하고 사로잡고 모든 소유물들을 빼앗아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자들의 장자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합니다.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그 빌하가 낳은 자식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나중에 단 지파, 납달리 지파의 머리가 되죠.
저는 궁금합니다.
여동생인 디나가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에 그렇게 악랄할 정도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약탈하던 자들이, 이제 단과 납달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배다른 형인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를 범했습니다. 이제 단과 납달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없어요.
무슨 마음을 먹고 르우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하고 아무 짓도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왜 굳이 이렇게 쓰였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걸어가는 길에 얼마나 위험한 길을 담고 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걷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걷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포장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두 경우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 이렇게 위험한 길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세 번 쓰이게 되는 이유와, 르우벤의 패륜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축복 주도권을 쥔 채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축복 주도권을 쥐었다는 공통점을 놓고 비교했을 때에,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점은 하나님만으로 축복을 얻겠다고 선택한 점입니다.
그러나 이 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결국 축복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긴 채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하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죽일 민족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죽일 민족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유대민족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울 준비가 되어있는 자들입니다. 축복 주도권을 놓고서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강요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는 점에서는 이방인들보다 낫지만, 그들이 역시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위험한 자들이고 이러한 위험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르우벤이 서모를 범하는 만행과 패륜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위험한 길을 우리가 좀 순화시켜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는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대로'
이 말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네 마음이 가는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는대로 행하면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책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가는대로 따라가는 것이 왜 위험하냐?
마음은 육체의 노예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마음이 딸려 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마음이 딸려 들어가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노예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상태냐?
이방인들도 공통적으로 걷고 있는 마음을 따라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잡게 됨으로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선민의식 때문에 더 안전한 마음을 갖고, 의구심 없이 더 괜찮고 더 허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걷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길의 선구자가 바로 야곱이고, 그런 선구자적인 모습이 바로 라헬이 죽어 장사지내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 가는대로 가는 길이 어떻게 위험한 길이 되는지를 야곱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제 벧엘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도상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난산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죽는 순간에 아기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베노니’의 뜻은 ‘나의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슬프냐?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고, 또 아들은 엄마 없이 자라야 되니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기에 ‘나의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는데, 라헬이 죽은 뒤에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고, 행복을 상징하고, 탁월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슬픔과 고통에 차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은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내의 몸에 병이 생기면서, 임신을 지속하게 될 경우에는 아내 생명이 위협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 아내는 목숨을 걸고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과 주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낳으면서 아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가 아내가 고집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들은 자식은 눈에 안 보이고 아내만 보이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한 지 3년쯤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는 안 보이고 아이만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만, 아내를 사랑하던 경우에는 아내를 죽이며 태어난 자식이 그렇게 원망스럽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픔의 아들이고 고통의 아들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는 행복의 아들, 탁월함의 아들, 기쁨의 아들로 바꾸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 아들은 엄마가 죽은 슬픔을 이기고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과 야곱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라헬을 보고 마음이 반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했다가, 라반에 속아서 레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7년을 더 일합니다. 그 동안에 레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라헬만 바라보면서 라반 외삼촌의 속임수에도 마다하지 않고 14년 노동 끝에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리고 레아를 얻은 후에 7년 동안 더 일했던 노동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7년이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학고 대학교 1학년을 마쳤을 때입니다. 우리 생애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에요. 얼마나 라헬을 사모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이 죽었는데 그 즉시로 태어난 아들을 행복의 아들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벧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어버립니다.
19절에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주석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더워서 시체가 빨리 부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건조한 땅이고 우리나라보다 시체가 덜 부패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애굽에서 죽을 때에 자기의 유해를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 있는 막벨라 동굴에 묻으라고 한 사람입니다. 요셉도 자기가 죽고 나면 먼 훗날에 애굽을 나갈 때에 나의 유해를 막벨라 동굴에 안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레아를 막벨라 동굴에 장사지내고, 레아 옆에 자기를 묻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년을 속아서 한 노동의 기간 동안에도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너끈히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라헬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좋아합니다. 마음이 가는대로 따라서 14년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한 라헬인데 지금 야곱의 마음을 보면 라헬에 대한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길에 묻을 수는 없는 거예요.
라헬이 정실부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나 압력이 가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자기도 차자로서 장자의 자리에 섰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자매가 아내가 되었지만 얼마든지 라헬도 레아를 제치고 본처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막벨라 동굴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 가나안 남부지방에서 막벨라 동굴까지는 애굽에서 막벨라 동굴까지 오는 거리보다는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길에 묻어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두 번씩이나 이방 왕들의 침실에 들여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사라가 죽었을 때에 23장 2절에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 때문에 막벨라 동굴을 샀습니다. 그 헤브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장사지낼 굴을 구입하기 위해서 간청을 하고, 그렇게 울고 곡을 하며 사라의 장사를 지냅니다.
사라는 두 번씩이나 이방인에게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아내가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14년 동안 고된 노동을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라헬을 정열적으로 뜨겁게 사랑했지만, 라헬은 길에 묻고 레아를 정실부인으로 앉혀서 막벨라 동굴에 장사지내고 자신을 레아 옆에 묻으라는 유언을 합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그 뜨거움을 따라 행한 것, 우리 마음이 좋아서 그 좋음을 따라 행한 것들은 결국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레아가 정실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부인이었어요.
야곱이 해야 했던 일은 내 마음이 가는대로 따라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육체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육체의 귀로 듣기에 좋은 것, 육체의 손으로 만지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민들 중에서 이 길의 창시자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선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 길을 간 자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마음대로 열려지는 길, 마음을 따라 가게 되는 길을 제단을 쌓아가면서 다 차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서 사라와 평생 부부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을 때에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유지되었던 부부관계였습니다.
이 라헬과 야곱의 관계는 정열적인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관계인데, 울었다는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죽으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그 즉시로 행복의 아들로 바꾸어버립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해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며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겠지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마음이 가는대로 가는 길을 여전히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마음이 가는대로 가는 길을 가며 불상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이 가는 길을 못 가게 하실 경우에는 하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진짜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가는대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방해가 되면 우상화된 하나님이 선민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화 된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우상은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견이 우상의 계획이고 우상의 생각이고 우상의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라헬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던 야곱은 자기 스스로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렇게 살게 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지면서 이 세상에서 좋다하는 것들을 내 마음이 가는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1년도 못가서 3년도 못가서 10년도 못가고 15년도 못가서 반드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뜨겁게 좋아했던 마음이 식어버리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게 아니었음을 반드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나의 원수로까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대로 간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가는대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가는 반드시 내 인생에 역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역류가 뭡니까? 바로 르우벤이 서모를 범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런 만행이 자행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이 가는대로 행하는 나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칭의(稱義)해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방인인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느끼는 강도가 훨씬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리 악다구니로 싸우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도 그것이 악한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 가는대로 욕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칭의 해주는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이 가는대로 가면서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마치 MRI 촬영으로 드러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름입니다.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확신에 차서 마음이 가는대로 따라가며 살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데, 제일 위험하고 제일 피해야 될 길인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육체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마음이 가는 길은 십자가로 언제나 끝이 나야만 함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선민으로 선택된 시점으로부터 참 선민답게 되는 길이 가장 빠르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